

120년 광주 변천사 한눈에 본다



1896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에 있던 전남도청.



현 광산동에 1925년 신축된 광주면사무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3일~11월 13일 '오디세이, 광주 120년' 기획전

나주 행정중심 광주 이전 120주년 사진·문헌·그림 자료 200여점 선봬 광주 발전 과정 되돌아보고 미래 예측

전라도는 대표 고을 전주와 나주 머리글자를 합친 말로, 고려 현종(992~1031) 때 만들어진 전라도(全羅道)에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약 1000년이 넘는 현재 전라도 중심 도시는 전주, 나주 아닌 광주다.

2016년은 나주에서 행정중심지가 광주로 옮겨온 지 2주갑(120년)되는 해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오디세이, 광주 120년' 기획전을 열며 광주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문헌, 그림 등 자료 200여점을 선보인다. 제1부 '1896년 광주'에서는 광주가 오늘날 광주·전남 인구의 40%, 호남권 인구 30%가 모여 사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계기인 1896년에 주목한다. 초기 발전과정과 함께 도청이 처음엔 광산동이 아닌, 금남로1가 전일빌딩 자리에 있었고, 현재 옛 도청 건물은 1930년에 신축했다는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또한 1900년대 초 전남도 예산을 광주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전액 충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광주군 결산전 상남 미납 성책'도 새롭게 발굴, 소개한다.

제2부 '일제강점기의 총장로와 광주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광주가 도청소재지라는 이점을 활용해 근대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다룬다. 대표적 사례로 총장로를 꼽았다. 1930년대 총장로 유명 상점과 상품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또 도시개발 양면성을 보여주는 광주전 변천사도 살펴본다. 택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1920~30년대 직선화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둘러본다. 1930년대 광주

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서석초등학교 소장 그림도 공개한다.

제3부 '1960년대의 금남로'는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춰 광주가 현대도시로 도약하던 60년대 이야기를 다룬다.

금남로 확장과정에서 숨겨진 비밀, 그 과정에서 희생된 금남로4가 단풍나무, 경양방죽 매립과 태봉산 훼손에 관한 자료도 전시한다. 1928년 태봉산에서 출토된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인조의 아들 용성대군 태항아리와 태지석도 선보인다. 또한 1960~70년대 인구 30만에서 70만으로 급증하면서 겪은 애환도 만날 수 있다. 당시 시민들은 매일 수돗물 문제로 전장을 지르듯 살았다.

마지막 제4부 '도시의 확장, 제1순환도로'에서는 1970년에 착공, 1988년 완공된 제1순환도로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광주 변천사를 다룬다. 1백년 전, 한 시간이면 시내 한바퀴를 돌 수 있었던 광주는 제1순환도로 안쪽으로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바뀌어 있었다. 1970년대 주택난과 연료난은 당시 시민들의 최대관심사였다. 1966년 등장한 광주 최초 미도아파트부터 최초 아파트단지인 운암동 주공1단지도 이어지는 주택 이야기, 그리고 연탄에 얽힌 사연을 소개한다. 문의 062-613-53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석초등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1930년대 광주전 그림.



태봉산에서 출토된 용성대군 태항아리.

'땅과 땅 위의 것'...백미리내 첫 개인전

18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땅과 땅 위의 것'

먹을 머금은 모래로 한국화를 그리는 백미리내 작가가 12일부터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땅과 땅 위의 것'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백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땅과 땅 위의 것', '흔적-순환' 시리즈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모래를 거대한 세상이 담긴 상징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바위가 점점 작아져 모래가 되는 과정을 삶의 무게를 달아내는 과정과 똑같이 봤다.

한줄 모래를 먹에 적혀 화선지에 뿌린 뒤 손으로 휘젓는다. 작품 '순환', '흔적-

얼굴' 등은 거친 면과 선이 특징이다. 단아한 붓질보다는 힘이 느껴지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또 '땅과 땅 위의 것'시리즈는 너른 들과 높은 산, 해, 달 등 자연을 소재로 삼았다. 서양 추상표현주의와 만년 동양적 사고, 작가의 독특한 기법이 어우러진 실험적 표현방식을 볼 수 있다.

백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올해 광주국제아트페어 영아티스트전, 신안 김화기 국제아트페스티벌 등에 참여했다. 현재 은암미술관 레지던스 여성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용희기자 kimyh@

아트타운갤러리 17일까지 소품판매전

아트타운갤러리가 가을을 맞아 '10월의 향연' 소품판매전을 17일까지 연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전남, 서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 14명이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설치 등 60여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김성숙, 노여운, 류현자, 박진우, 박영진, 양나희, 이정기, 이영희, 이지희, 유광성, 장용림, 조성숙, 주성범, 황경숙 등이다.

작가들은 10호 크기 최곱작들을 선보이며 판매가는 50만원부터 시작한다.

김성숙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낙엽으로 물든 산을 형상화한 '가을의 향연'을 출품한다. 노여운 작가가 그린 '꽃은 피어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시는 꽃을 소재로 시간 흐름을 표현한 작품이다. 류현자 작가는 '사모곡-연'시리즈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중국 유광성 작가가 작업한 '모자이크 시리즈'는 붉은 바탕에 바이올린을 표현한 혼합미술이다.



노여운 작 '꽃은 피어난 것'

그밖에 이정기 작가는 사과 조형물 안쪽에 깨진 유리를 붙인 설치작품 '사과, 맛을 보다'를, 황경숙 작가는 여성 조각상 'I see You'를 판매한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

황영성·박석규·송·송·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은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판(이스타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디자인에서 만나보세요!

5톤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새도록 타고 안서 물이 새지 않는 실험 동영상 보러

*실제 시공 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문의: 062-05620350
문의: 062-10977840
문의: 062-05481890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초당요양병원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 친절한 믿음의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치매/뇌졸중(중풍)/호스피스/당뇨/고혈압/각종노년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생남1길 97-2
☎(061)453-4300
FAX(061)453-1119